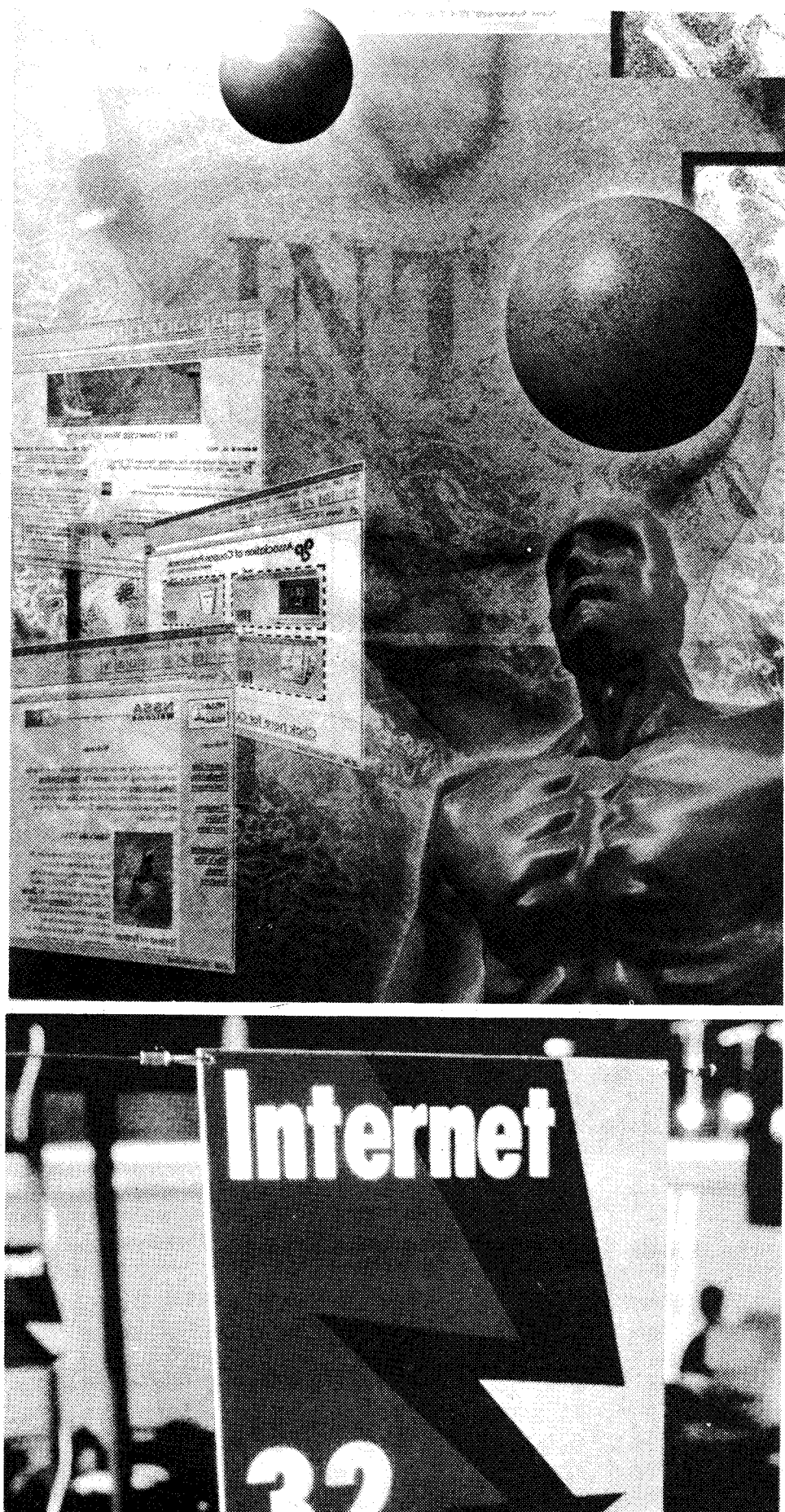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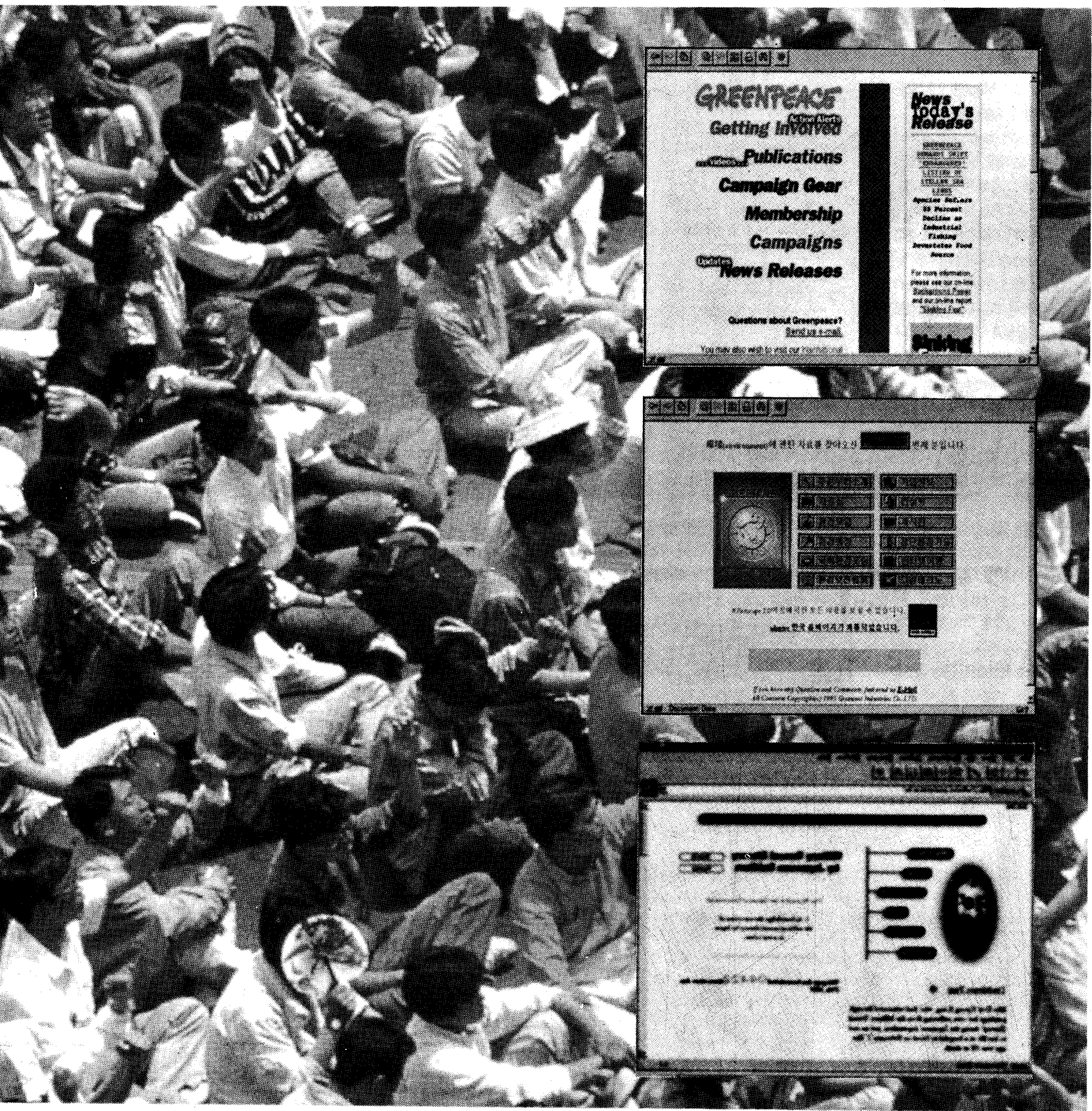




현장취재

...정보연대 SING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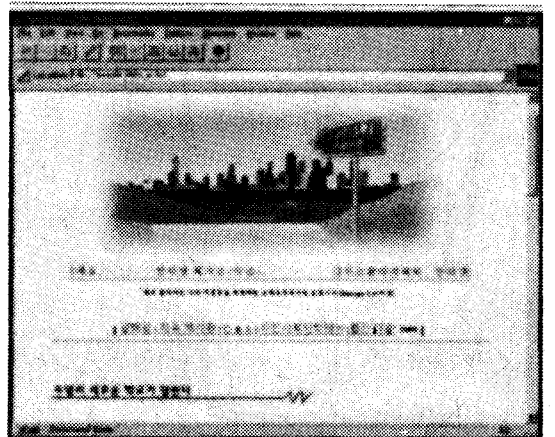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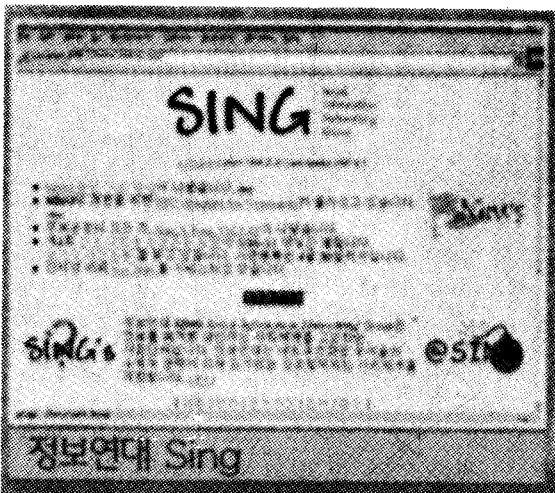
정보의 평등한 접근을 통한 '민주주의' 구현

정보화 기술이 나날이 다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환상에 부풀게 되었다. 이미 통신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수가 3백만명을 넘어서고 인터넷의 활용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이런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 진보만은 사이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활동도 상당 부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우선 현재까지 인식되어 오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정보에 대한 지식과 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정보마인드 확산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단체로 정보연대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이 있다. 이들은 현재 불어오는 인터넷의 상업화 바람에 맞서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고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 하나의 정보가 창출될 때에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새롭게 창출된 정보는 결국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정보독점의 근거가 되는 지적재산권(Copyright)을 철폐해야 한다는 'Copyleft' 운동과 GNU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GNU프로젝트는 'Copyleft' 운동을 뒷받침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고 개발자에게 사회적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운동이다.

SING에선 사이버공간의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체 구현을 모색하기도 한다. 지난 총파업때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관련한 서명운동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전자주민카드를 철폐되어야 한다는 운동



도 전개중이다.

SING이외에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는 여럿이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 진보적인 단체들을 인덱스한 한국진보디렉토리(KPD:Korean Progressive Directory)가 개설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KPD에 링크된 단체에는 인터넷 상에서 민간단체의 의사소통 및 홍보를 지원하는 '시민사회 인터넷', 노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꿈꾸는 '노래 하나 햇볕 한줄' (A Song and Sunshine), 여성들의 정보화운동을 전개하는 페미넷(Feminet) 등이 있다. 또한 지난 4월19일부터 인터넷 상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전교조, 여성단체연합 등의 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민간단체네트워크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은 결국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활동만은 진정한 공동체 구현은 이뤄질 수 없다.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적 역량이 성숙되고 민간 차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전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만이 사이버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현실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것도 엄연한 사이버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내적 혹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제약 받는 문제도 있다.

〈최용섭 기자〉

경희의 통신 공동체 ...GO khu 비판적 의견 활동 공간

가상공동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의 통신도 모두 가상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신상에서 우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로 창립 2주년을 맞이한 하이텔 내의 '경희대 통신 동화회'를 들 수 있다.

"제가 경희동을 자주 찾는 이유는 바로 경희동의 편안함 때문이죠."

현재 경희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회원의 말이다. 실제로 경희동은 남녀노소, 학내, 학외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현재 1천9백7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며 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약 1천3백명 정도된다. 경희동 대표시삽 이제열(ID: azavong)씨는 경희동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회원들간의 뛰어난 화합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 간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희동은 두 캠퍼스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서울, 수원 간의 거리차가 사라지고 하나된 경희공동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현실공간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인 '병개'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물론 경희동에서 화합만을 도모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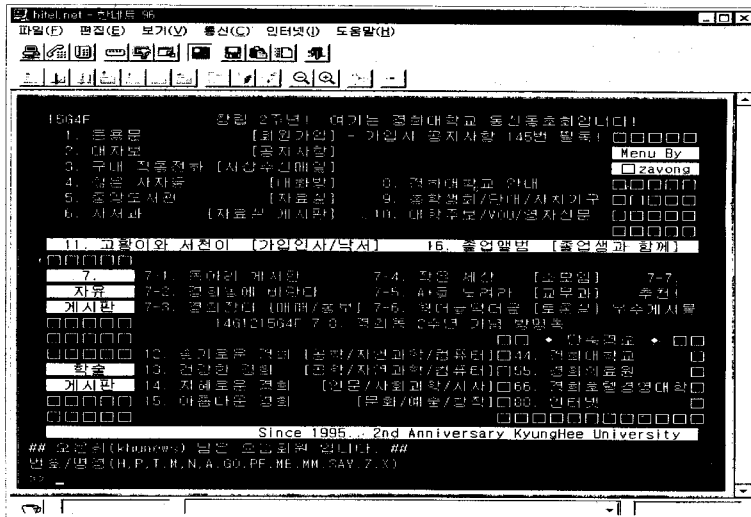
아니다. 학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실제로 지난 96년 봄에 학내에서 노트북을 처음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얼마전 총대생 살해사건관련 서명운동에 다함께 동참하는 캠페인도 전개되었다.

한편 일반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고 있다. 학내에 가지는 불만사항이나 총학생회에 바라는 점들을 메일로 보내면 이에 대한 추진과정 및 개선방향들을 들을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사이버 공동체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가상공간과 현실 간의 뻗 수 없는 연관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이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

현재 하이텔 이외에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에서도 '경희대 통신 동화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용섭 기자〉



◀하이텔 내의 '경희대 통신 동화회' 초기메뉴